



제목	간추린 보편 공의회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가톨릭출판사
발행일	2010. 12. 15.
저자	노만 P. 탄너 김영식 · 최용감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199
ISBN 또는 ISSN	978-8932112138

내용 요약

이 책은 기독교의 고대 보편공의회로부터 중세의 공의회를 거쳐 근대의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2천년 기간 동안 기독교 교회를 대표하는 공의회를 연구, 분석한 책이다. 먼저 저자는 공의회(council)와 시노드(synod)를 구분한다. 시노드가 교황에게 자문해주고 심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공의회는 입법권 또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시노드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 쉬노도스(σύνοδος)에서 유래했으며, 세속적 모임이든 종교적 모임이든 모든 모임을 뜻한다. 보편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 에큐메니칼은 그리스어 오이코우메니케(οἰκουμένη)에서 유래했으며,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세상에 속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의회와 관련해서 말하면 로마제국 도처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저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교회에 주어진 평행 덕분에 보편공의회가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고대 보편공의회 참석자들과 진행과정에 대해 논의할 때, 제1차 니케아공의회가 중요한 출발점이자 기준이 된다고 한다. 공의회에서는 의제에 대해 결의할 때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한다. 저자는 공의회역사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도 세계사 안에서도 경이로운 일련의 회합들이었으며, 21차례의 보편공의회는 성경 다음으로 교회 가르침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초기 공의회 가르침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로마가톨릭, 정교회, 개신교)의 공동 유산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